

## ■ 제목

2025 Student Art Exhibition: Submission Deadline Update

2025 학생 미술 전시회: 제출 마감일 업데이트

## ■ 주제

"2025 Student Art Exhibition participation confirmation and submission deadline change"

"2025년 학생미술전 참가 확정 및 제출기한 변경"

## ■ 요지

Participation in the 2025 Student Art Exhibition requires submitting students' work by the updated deadline of April 15th.

2025년 학생 미술 전시회에 참여하려면 4월 15일의 마감일까지 학생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요약

The 2025 Student Art Exhibition has extended the submission deadline to April 15th and looks forward to showcasing students' talents.

2025년 학생 미술 전시회에서는 제출 마감일을 4월 15일로 연장하고 학생들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구성

서론: 2025 학생 미술 전시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체의 행사는 10년 동안 어린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전시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본론: 접수된 지원서를 검토한 후,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작품 제출 마감일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작품을 이미 통보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감사합니다.

## ■ 제목

"Dreams Shattered: The Audition That Changed Everything"

"꿈은 산산이 조각났다: 모든 것을 바꾼 오디션"

## ■ 주제

Will Sam succeed in his life-changing audition to become a musical actor?

샘은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한 인생을 바꿀 오디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 ■ 요지

Despite his dedication and preparation, Sam struggles with stage fright during a life-changing audition.

그의 헌신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샘은 인생을 바꿀 오디션에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린다.

## ■ 요약

Despite endless practice and high hopes for a life-changing audition as a musical actor, Sam's mind went blank when he stepped on stage, preventing him from delivering a single line.

끝없는 연습과 뮤지컬 배우로서 인생을 바꿀 오디션에 대한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샘은 무대에 오르자마자 머릿속이 텅 비어 단 한 줄도 말할 수 없었다.

## ■ 구성

서론: Sam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고, 오늘은 그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삶을 바꿀 오디션의 날이었다.

본론: Sam은 끊임없이 연습을 해왔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무대에 오르자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게 되었고, 연습했던 첫 대사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한 발의 라인도 말하지 못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 Sam은 누구도 믿지 못할만큼 한 마디도 말하지 못했고, 큰 실망에 빠졌다.

## ■ 제목

### Navigating Persuasion: Harnessing Doubt to Open Minds

설득의 향해: 의심을 활용하여 마음을 여는 것

## ■ 주제

The effectiveness of persuasion can be enhanced by expressing doubt as a way to promote open-mindedness and receptiveness to opposing viewpoints.

반대 의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수용적 태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의심을 표현함으로써 설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요지

The main idea is that in order to persuade others effectively, it can be helpful to express doubt and be more indirect when presenting opposing viewpoints. This approach can make people more open-minded and receptive to considering different perspectives.

주요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표현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데 수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 요약

People are more resistant to persuasion when they feel their beliefs are being challenged, making it crucial to approach opposing viewpoints with doubt and openness to increase receptiveness and effectiveness.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도전받는다고 느낄 때 설득에 더 저항적이기 때문에 수용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대 의견에 의심과 개방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구성

서론: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자신의 안티-설득 레이더나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타인이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정보를 제시할 때 듣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본론: 이로 인해 변화는 어려운 것 중 하나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상반되는 정보를 심지어 고려해보려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반대 의견과 상대할 때 간접적인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정보 제시 대신,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써 시작한다.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갈등하거나 불확실해 보이면, 다른 측면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유실을 보고해서 어느정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 불확실성은 다른 관점에 개방적임을 나타낸다. 특히 논란이 있는 문제나 사람들이 굳게 들고 있을 때, 약간의 의문 표현은 사실 더 설득력이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제목

Descartes' Tree: Unity of Science and Philosophy

데카르트의 나무: 과학과 철학의 통일

## ■ 주제

How did Descartes's tree metaphor illustrate the unity of science and philosophy in the old classical sense?

데카르트의 나무 은유는 고대 고전적 의미에서 과학과 철학의 통합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 ■ 요지

The unity of science and philosophy, as seen through Descartes' tree metaphor, elucidates the evolution of metaphysical principles to applied science, emphasizing the shift from foundational roots to observable fruits.

데카르트의 나무 은유를 통해 본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형이상학적 원리가 응용 과학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근본적인 뿌리에서 관찰 가능한 열매로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 ■ 요약

Descartes' tree metaphor illustrates the unity of science and philosophy, focusing on metaphysics as the roots, physics as the trunk, and applied science as the branches and fruit.

데카르트의 나무 은유는 과학과 철학의 통합을 보여주는데, 형이상학을 뿌리, 물리학을 줄기, 응용 과학을 가지와 열매로 봅니다.

## ■ 구성

서론에서는 Descartes의 나무 비유로 과거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과학과 철학의 통일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Descartes가 과학과 철학을 하나로 본 것을 소개하고, 그가 과학과 철학 시스템을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음을 언급하며, 응용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Descartes의 과학-철학 체계로부터 관찰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설명하며, 다시 비유적인 나무를 통해 새로운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 ■ 제목

Crafting Narrative: Techniques and Talents

내러티브 제작: 기술과 재능

## ■ 주제

Crafting effective narrative writing involves both talent and technique, drawing on time-honored tools of fiction such as plot, pacing, character development, and suspense. Good narrative nonfiction requires a structured form to guide the reader through the story from beginning to end, showcasing the writer's craftsmanship akin to that of a cabinet maker or violin builder. This emphasis on structure is essential for creating impactful storytelling in journalistic writing.

효과적인 서사적 글쓰기를 만드는 데는 재능과 기술이 모두 필요하며, 플롯, 페이스, 캐릭터 개발, 서스펜스와 같은 오래된 허구의 도구를 활용합니다. 좋은 서사적 논픽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를 안내하는 구조화된 형식이 필요하며, 캐비닛 제작자나 바이올린 제작자와 유사한 작가의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구조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저널리즘 글쓰기에서 영향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 ■ 요지

Crafting effective narrative writing involves utilizing techniques borrowed from fiction writing and employing a structured approach to storytelling.

효과적인 서사 글쓰기에는 소설 쓰기에서 차용한 기법을 활용하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 요약

Good narrative writing combines technique with talent, using time-honored tools of fiction writers to create a structured and engaging story.

좋은 서사 소설은 기술과 재능을 결합하여, 소설가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도구를 사용하여 구조화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 구성**

서론: 좋은 서술적 글쓰기는 재능만큼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다.

본론: 비서술 비소설 작가들이 종종 효과를 내기 위해 소설 작가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도구인 줄거리와 페이스, 캐릭터와 드라마, 그리고 긴장감을 활용한다. 좋은 이야기가 스파게티처럼 모든 방향으로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야기는 형식, 모양, 독자를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 디자인이 필요하다.

결론: 작가의 장인 정신은 가구제작자나 신전이나 고급 바이올린 제작자의 장인 정신만큼 아름답다. 이 접근은 언론 건축학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 청사진을 마련한 후에, 작가는 그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결정하고 이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할 수 있다.

## ■ 제목

The Role of Language in Social Coordination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사회적 조정과 과학적 이해에서 언어의 역할

## ■ 주제

The role of language in shaping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social coordination.

과학적 이해와 사회적 조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역할.

## ■ 요지

Language is essential for describing and understanding shared realities and coordinating social behaviors, including within the scientific realm such as particle physics.

언어는 공유된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사회적 행동을 조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입자 물리학과 같은 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 요약

Language is crucial for social coordination in science and all collective culture, with even the most objective pursuits like particle physics leveraging linguistic descriptions for understanding.

언어는 과학과 모든 집단 문화에서 사회적 조정에 필수적이며, 입자물리학과 같은 가장 객관적인 연구에서도 이해를 위해 언어적 표현이 활용됩니다.

## ■ 구성

서론: 사회 조정의 목적으로 어떤 것을 공유 현실로 가져 오려면 그것을 설명하거나 최소한 레이블을 붙여야 한다.

본론: 과학의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추구조차도 언어의 프레임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학은 보고, 이성, 토론, 협상, 정당화, 합의 및 조정에 기반을 둔 집단 문화와 마찬가지로 언어에 의해 구축된다.

결론: 물리학 또한 언어에 의존하며, 예시로 '무한한 가능한 우물' 모델을 살펴보면 입자 물리학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학적 설명으로 언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 제목

"The Unique Adaptation of Human Sclera: A Window to Our Social Evolution"

"인간 강막의 독특한 적응: 사회적 진화를 향한 창"

## ■ 주제

Why do humans have such visible sclera in their eyes, and what advantages does it offer in interpersonal interactions?

인간의 눈 속에는 왜 그토록 뚜렷한 강막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대인관계에 어떤 이점을 제공할까?

## ■ 요지

Humans have uniquely visible sclera that may have evolved to enable clear communication through eye contact.

인간은 눈을 마주쳐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진화했을 수 있는 독특하게 눈에 보이는 강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요약

Humans have developed uniquely large and visible sclera, enabling them to clearly discern where others are looking.

인간은 독특하게 크고 눈에 잘 띄는 강막을 발달시켰는데,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 ■ 구성

서론: 인간은 다른 종들 중에서 가장 크고 뚜렷한 흰자 (sclera)을 가지고 있다.

본론: 흰자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짐작상 뚜렷한 불리함이 될 것 같지만,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협력적인 눈 가설을 통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결론: 눈동자를 통한 상호작용은 인간에게 특이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 ■ 제목

The Influence of Hans Hofmann

한스 호프만의 영향

## ■ 주제

What was the impact of Hans Hofmann on modern art education and his artistic journey?

한스 호프만은 현대 미술 교육과 그의 예술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 요지

Hans Hofmann, a prominent art teacher and artist,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art world in the 20th century through his innovative use of color and establishment of art school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한스 호프만은 저명한 미술 교사이자 예술가로, 색채의 혁신적인 활용과 유럽과 미국에 미술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20세기 미술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 ■ 요약

Hans Hofmann, a prominent art teacher,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art world in the 20th century through his innovative teaching methods and colorful paintings.

저명한 미술 교사인 한스 호프만은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다채로운 그림을 통해 20세기 미술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 ■ 구성

서론: 20세기 최고의 미술 교사 중 한 명인 Hans Hofmann에 대한 간단한 소개

본론: 그의 출생지, 청년 시절, 미술에 대한 영향을 받은 도시, 그림 학교를 개설한 경위, 이주한 국가와 활동 내용

결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미술 작품을 계속 제작했던 Hofmann의 인상적인 활동에 대한 간략 설명

## ■ 제목

"The Depths of Ignorance and Illusion: Exploring Error in Human Knowledge"

"무지와 환상의 심층: 인간 지식의 오류 탐구"

## ■ 주제

What are the limitations of our understanding of errors and illusions in human knowledge acquisition?

인간의 지식 습득에 있어서 오류와 착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 ■ 요지

The text explores how our understanding of error and knowledge is deeply connected to our limitations in perception and the complexities of the human mind.

이 글은 오류와 지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인식의 한계와 인간 정신의 복잡성과 어떻게 깊은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 요약

Our understanding of error sources is limited as we delve deeper into the complexities of human knowledge acquisition, revealing a profound depth of ignorance and illusion in our mental processes.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오류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고, 우리의 정신적 과정에는 무지와 착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 ■ 구성

서론: 오류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론: 과학적 지식이 쌓일수록, 이 지식 기반 위에 세워진 무지가 놀랍게 깊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정신분석이 심리치료 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실수의 종류를 범주화하여 오류의 원인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주관자의 정상 조건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다. 인간 정신의 구조와 복잡한 신경계를 갖춘 인간 지식자의 특정 체현에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의 정신 생활은 모든 지식 습득 수준에서 일루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 우리는 무지와 일루전의 영역에 물들어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의 무지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막대한 배경의 공유된 객관적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주관성과 객관성은 우리의 실수와 뒤얽음 질통되어 있다.

## ■ 제목

"The Loss of Aura in Modern Copying Technology"

"현대 복사 기술에서의 아우라의 상실"

## ■ 주제

How has modern technology impacted the sense of human connection and the authority of tradition, according to Walter Benjamin?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현대 기술은 인간의 연결성과 전통의 권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 요지

Modern technology has made copying easy and abundant, leading to a loss of human connection and intimacy, as discussed by Walter Benjamin in relation to mechanical reproduction.

현대 기술로 인해 복제가 쉽고 흔해졌고, 이로 인해 인간적 연결과 친밀감이 상실되었습니다. 발터 벤야민이 기계적 복제와 관련하여 논의한 바와 같습니다.

## ■ 요약

Modern technology has made copying easy and abundant, leading to a loss of human connection and the uniqueness, or "aura," of art objects as described by Walter Benjamin.

현대 기술 덕분에 복제가 쉽고 흔해졌으며, 이로 인해 인간적 연결과 발터 벤야민이 묘사한 예술 작품의 독특성, 즉 '아우라'가 상실되었습니다.

## ■ 구성

서론에서는 현대 기술의 발달로 복사가 쉬워졌고, 이로 인해 복사물이 인간적 연결, 풍성함,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월터 벤야민의 "오라" 개념을 소개하며, 기계적 복제로써 작품의 본질적인 면이 상실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기계적 복사가 미술 및 대중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면서 전통을 훼손하고, 물건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벤야민의 주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 제목

Navigating Life's Uncertainties: Seeking Stability in an Unpredictable World

인생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간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다

## ■ 주제

The fragility of human well-being in a world of uncertainty and insecurity.

불확실성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 웰빙의 취약성.

## ■ 요지

The search for stability in an uncertain world.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다.

## ■ 요약

Life's uncertain nature brings about fragility in human well-being, leading to a constant struggle with fear and doubt in search of stability amidst the unpredictable.

삶의 불확실한 본질은 인간의 웰빙을 취약하게 만들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며 두려움과 의심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어진다.

## ■ 구성

서론: 삶은 불확실하며 인간의 복지는 부서지기 쉽다.

본론: 우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종 인간 존재의 변덕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을 찾는 우리는 불확실함을 잘 다루지 못한다.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결론: 우리는 불확실성과 변화에 안정성을 찾고 싶어하는 본능적 욕구를 가진 존재이며,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얻으려는 욕망을 품고 있다.

## ■ 제목

"The Look": Exploring the Vulnerability of Being Seen

"The Look": 보이는 것의 취약성 탐구

## ■ 주제

How does Jean-Paul Sartre explore the concept of "The Look" in Being and Nothingness and its impact on human vulnerability and self-perception?

장폴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시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탐구했으며, 이것이 인간의 취약성과 자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 ■ 요지

The main idea of the text is about the existential vulnerability and unease that arises from being seen by others and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fully know or control their perceptions of us.

이 글의 주요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에서 발생하는 실존적 취약성과 불안,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알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 ■ 요약

Jean-Paul Sartre's "The Look" explores the unease and vulnerability that arises when one transitions from seeing to being seen, highlighting the uncertainty and lack of control in how others perceive us.

장폴 사르트르의 '시선'은 사람이 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불안과 취약성을 탐구하며, 타인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통제력 부족을 강조합니다.

## ■ 구성

서론에서는 Jean-Paul Sartre의 책 'Being and Nothingness'의 대표적인 부분 중 하나인 "The Look"을 소개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성에 대해 언급한다.

본론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시각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각에 대한 불확실성과 심리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요약한다.

## ■ 제목

"The Farthest Plane: Limitations in Perceiving Distance"

"가장 먼 평면: 거리 인식의 한계"

## ■ 주제

Is there a limit to how far objects can be perceived in visual space and do they shrink in size when perceived beyond this limit?

시각 공간에서 물체를 얼마나 멀리까지 인지할 수 있는지에 한계가 있나요?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 인지하면 물체의 크기가 줄어들습니까?

## ■ 요지

The perception of distance for faraway objects is limited by a "farthest plane," leading to objects appearing smaller rather than farther away.

멀리 있는 물체의 거리 인식은 "가장 먼 평면"에 의해 제한되므로 물체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작게 보입니다.

## ■ 요약

Objects far away are perceived to be at a global limitation, as if at the same distant point, leading to the idea of a "farthest plane" where objects appear to shrink rather than move further away beyond that point, affecting our perception of size constancy.

멀리 있는 물체는 마치 같은 거리의 지점에 있는 것처럼 전역적 한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물체가 그 지점 너머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먼 평면"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이는 크기의 불변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 ■ 구성

서론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물체들의 지각 거리가 주로 "하늘"에서 감지된다는 아이디어가 소개되고, 시각 공간이 열려 있지 않고 보이는 표면이나 하늘에서 끝난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본론에서는 "가장 먼 면"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한계가 제안되었으며, 이것을 넘어선 관측 대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아이디어가 소개되었습니다. 결론에서는 크기 일정성의 인식 한계를 나타내는 "가장 먼 면"이라는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 제목

"The Aesthetics of Simplicity: Bridging Art and Science for Precise Communication"  
 "단순함의 미학: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술과 과학의 연결"

## ■ 주제

The topic of this text: "The Role of Simplicity and Systematic Approach in Art and Science for Precise Communication"  
 이 텍스트의 주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술과 과학에서의 단순성과 체계적 접근의 역할"

## ■ 요지

The main idea is that simplicity and structure are essential in facilitating clear communication and creativity in both arts and sciences.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단순성과 구조가 예술과 과학 모두에서 명확한 의사소통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 ■ 요약

An aesthetics of simplicity aids precise communication in both art and science, where systematic approaches support creativity by providing structure and constraints for artistic freedom.

단순성의 미학은 예술과 과학 모두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예술적 자유에 대한 구조와 제약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지원합니다.

## ■ 구성

서론에서는 간소화된 미학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중요하며, 예술과 과학 모두 체계적이라는 주장을 소개한다. 본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 본성적으로 난해하고 직관적인 반면, 과학만이 방법론적으로 훈련되어 있다고 믿지만, 예술도 종종 체계적으로 창작되며 자유는 틀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아티스트는 스스로를 제한하고 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 ■ 제목

"Human Cooperation in Cultural Transmission and Storage"

"문화 전수와 저장에서의 인간 협력"

## ■ 주제

How did early humans store and transmit cultural knowledge before the use of DNA?

DNA를 사용하기 전에, 초기 인류는 어떻게 문화적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했을까?

## ■ 요지

Early humans developed techniques of memorization, education, and external memory devices to store and pass on knowledge across generations efficiently,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preserving and transmitting ideas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like the Chauvet cave project.

초기 인류는 지식을 저장하고 여러 세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억, 교육, 외부 기억 장치 기술을 개발했으며, 쇼베 동굴 프로젝트와 같은 협력적 노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요약

Humans throughout history have developed techniques of memorization and external memory devices to store and pass on knowledge across generations, demonstrated in the enduring cooperative efforts at the Chauvet cave to maintain and improve artistic creations.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지식을 저장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하기 위해 기억 기술과 외부 기억 장치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는 쇼베 동굴에서 예술적 창작물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것에서 입증됩니다.

## ■ 구성

서론: 문화적 저장과 전달은 인간들이 DNA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지식을 저장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작업을 이루어내야 한다.

본론: 이를 위해 인간들은 기억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며, 외부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쇼베 동굴은 이러한 장치 중 하나로, 세대를 마다 다시 방문하는 장소로서, 혼자서는 이루어낼 수 없었던 프로젝트에 협력했다.

결론: 각 시대의 예술가들은 기술을 배우고 이전 세대의 작업물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작업을 지속했으며, 초기 인간들은 지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전하였다.

## ■ 제목

"Infinite Specificity: The Hypothetical Language of Absolute Detail"

"무한한 구체성: 절대적인 세부 사항의 가정적 언어"

## ■ 주제

What would a language with no simplifications or generalizations look like?

단순화나 일반화가 없는 언어는 어떤 것일까?

## ■ 요지

Language simplifies and generalizes for efficient communication, using shared words to convey common attributes and meanings across different objects and events.

언어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며, 서로 다른 사물과 사건에서 공통된 속성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공유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 ■ 요약

A language without simplifications or generalizations would consist of every word being a proper noun, requiring vast knowledge to learn all individual names and lacking the efficiency of conveying shared characteristics through common terms.

단순화나 일반화가 없는 언어는 모든 단어가 고유명사가 되어, 모든 개별 이름을 배우려면 방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공통된 용어를 통해 공유되는 특성을 전달하는 효율성이 부족합니다.

## ■ 구성

- 서론: 언어가 간소화나 일반화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 제시
- 본론: 각 단어가 고유명사인 언어의 특성과 현실적 한계,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전달되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 결론: 한정적인 인지 능력과의 타협뿐만 아니라, 같은 단어를 공유함으로써 전달되는 정보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

## ■ 제목

The Lack of Accountability in the Tech Industry

기술 산업의 책임감 부족

## ■ 주제

Should the tech industry be held accountable through self-regulation?

기술 산업은 자체 규제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 ■ 요지

The tech industry lacks ethical regulations and accountability, relying on self-regulation without consequences.

기술 산업에는 윤리적 규정과 책임이 부족하며, 아무런 결과 없이 자체 규제에만 의존합니다.

## ■ 요약

The tech industry's call for self-regulation lacks enforceable ethical standards, leading to a lack of accountability compared to other professions like medicine or law.

기술 산업에서는 자체 규제를 요구하지만, 시행 가능한 윤리 기준이 부족하여 의학이나 법조계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 ■ 구성

서론: 자기 규제는 기술 산업을 유지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나, 기술 로비스트들이 자기 규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바와는 다르다.

본론: 의사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기술 임원으로 일하기 위한 의무적인 윤리적 자격증이 없으며, 산업 내 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강제되는 산업 윤리 규범도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 대한 결과가 거의 없어서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이다.

결론: 기술 산업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의사, 변호사, 은행가, 조종사 등을 다루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 제도의 예외이며, 이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 ■ 제목

"The Role of Language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ncepts"

"감정 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

## ■ 주제

How do we develop and understand emotions, and are they innate or learned through language acquisition?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개발하고 이해하는가? 감정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언어 습득을 통해 배우는 것인가?

## ■ 요지

The main idea is that emotions are experienced through bodily sensations, and our ability to recognize and categorize emotions is dependent on language acquisition.

핵심 아이디어는 감정은 신체적 감각을 통해 경험되고, 감정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우리의 능력은 언어 습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 ■ 요약

We learn to identify and understand emotions by attaching words to our bodily sensations and recognizing facial expressions, indicating a possible development rather than inheritance of emotional concepts.

우리는 신체적 감각에 단어를 붙이고 얼굴 표정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이는 감정적 개념이 유전되기보다는 오히려 발전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 ■ 구성

서론: 우리는 심리적인 상태를 신체적인 감각으로 경험하며, 타인의 감정은 얼굴 표정과 행동으로 알아본다.

본론: 우리는 우리 종 내에서 보편적인 행복, 슬픔, 두려움, 놀람, 역겨움, 분노와 같은 기본 감정들을 고정된 세트에 타고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감정에 대한 단어들을 나중에 배워서 부착한다. 또 다른 시각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에 대한 단어를 부착할 때에만 신체 감각과 얼굴 표정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결론: 어린아이가 감정에 대한 어휘를 습득하기 전까지, 감정에 대한 다양한 표정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증거이며, 이러한 감정 단어를 습득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개념 세트를 발전시킨다.

## ■ 제목

"Unveiling the Myth of Unbiased Rationality"

"편견 없는 합리성의 신화를 폭로하다"

## ■ 주제

The elusiveness of unbiased rationality in human decision-making and the influence of motivated reasoning.

인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편견 없는 합리성이 갖는 애매함과 동기적 추론의 영향.

## ■ 요지

The struggle with bias and motivated reasoning in human decision-making.

인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편견과 동기적 추론 간의 싸움.

## ■ 요약

Despite our belief in unbiased decision-making, psychological research indicates that humans often rely on automatic processes and are influenced by their underlying motivations, leading to the phenomenon of "motivated reasoning" coined by Ziva Kunda.

우리는 편견 없는 의사결정을 믿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종종 자동적인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근본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바 쿤다가 만들어낸 "동기적 추론"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 ■ 구성

서론: 대부분은 자신이 편향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적 연구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임을 시사한다.

본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동 조종기 상태에 있으며, 고려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비평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노력할 때에도, 동기에 기인해 생각의 과정이 편향될 수 있다.

결론: "모티브드 리즈닝"이라는 용어를 만든 지바 쿤다는, 사람들이 증거를 활용하고 양쪽을 보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과정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동기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 이로써 정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선호하는 정보를 주의 깊게 살피는 반면, 틀린 것으로 여기는 정보의 결함에는 초점을 집중할 수 있다.

## ■ 제목

The Ownership of Algorithmic Processes

알고리즘 프로세스의 소유권

## ■ 주제

Is meta-algorithmics a human creation or a product of machines?

메타 알고리즘은 인간의 창조물인가, 아니면 기계의 산물인가?

## ■ 요지

The main idea is that the ownership of algorithms created by meta-algorithmics may belong to the computer instead of the human programmer due to the lack of intellectual control over the process.

핵심 아이디어는 메타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알고리즘의 소유권은 프로세스에 대한 지적 제어력 부족으로 인해 인간 프로그래머가 아닌 컴퓨터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요약

Meta-algorithmics, the creation of algorithms that generate other algorithms, challenges the traditional notion of human control and ownership, suggesting that the device, rather than the human programmer, may ultimately own the algorithmic process.

다른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창조하는 메타 알고리즘은 인간의 통제와 소유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하며, 궁극적으로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인간 프로그래머가 아닌 장치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 구성

서론: 메타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다.

본론: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와 달리 알고리즘은 일련의 작업을 정의, 설명 및 실시하여 다른 작업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이다. 작업의 전달 중에 원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알고리즘의 저자는 결과 프로세스의 지적 소유자가 아니다.

결론: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예측 가능성에 내재되어 있으며, 즉, 지적 제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가 없는 경우 알고리즘 프로세스의 소유권은 대신 그것을 생산한 장치, 즉, 컴퓨터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

## ■ 제목

"The Challenge of Translating Philosophy: Seeking Truth without Loss or Gain"

"철학을 번역하는 과제: 손실이나 이득 없이 진실을 추구하다"

## ■ 주제

Positioning Philosophy's Language: Where does philosophy, in the tension between literary and nonliterary language, stand in terms of translation challenges and creative re-renderings, aiming to convey truths without loss or gain?

철학 언어의 위치: 문학적 언어와 비문학적 언어 사이의 긴장 속에서 철학은 번역의 과제와 창의적인 재구성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며, 손실이나 이득 없이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 ■ 요지

Philosophy seeks to convey truths without compromising meaning in translation, favoring a nonliterary style to avoid creative interpretation.

철학은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며, 창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 비문학적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 ■ 요약

Philosophy aims to convey truths without loss or gain in translation, potentially aligning itself more with nonliterary language to avoid compromising meaning or truth.

철학은 번역 과정에서 손실이나 이득 없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미나 진실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비문학적 언어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구성

서론: 문학 텍스트의 번역은 어려운 일이며, 번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본론: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종종 창의적인 재해석을 일으키며 번역에서 이익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청발자 메뉴얼은 같은 도전을 제공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창의성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결론: 철학의 언어는 문학적 언어와 비문학적 언어 사이의 대립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 철학은 번역 중 정보의 손실을 위해, 번역에서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 철학은 진실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를 이전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손실 두려움이 소론이 되며, 번역에서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자신의 진실을 번역할지도 모른다고 망설일 수도 있다.

## ■ 제목

"Sibling Rivalry: The Carter Brothers' Struggle for Success"

"형제 간의 경쟁: 카터 형제의 성공을 위한 투쟁"

## ■ 주제

Choosing between brothers James and Daniel Carter for the Spark Fellowship posed a difficult decision for the selection committee, as both displayed exceptional talent and effort in the small town's academic community.

스파크 펠로우십에 참여할 형제 제임스와 다니엘 카터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일은 선정 위원회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도시 학술 커뮤니티에서 뛰어난 재능과 노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 ■ 요지

Two talented brothers, James and Daniel, compete for a prestigious fellowship, presenting a challenge for the selection committee in choosing between them.

재능 있는 두 형제, 제임스와 다니엘이 명문 펠로우십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며, 선정 위원회는 두 형제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난관을 겪습니다.

## ■ 요약

Two talented brothers, James and Daniel Carter, both applied for the prestigious Spark Fellowship, but faced a dilemma due to its strict rule allowing only one family member to be selected, leading James to find a way to highlight Daniel's exceptional talent to the selection committee.

재능 있는 형제 제임스와 다니엘 카터는 둘 다 명문 스파크 펠로우십에 지원했지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선발할 수 있는 엄격한 규칙 때문에 난감해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다니엘의 뛰어난 재능을 선발 위원회에 부각시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 구성**

서론: 작은 학문 커뮤니티로 유명한 작은 마을에서, 제임스와 다니엘 카터 형제는 뛰어난 노력과 재능으로 눈에 띄었다.

본론: 제임스와 그의 나이 어린 형제 다니엘은 둘 다 Spark 장학금에 지원했다. Spark 장학금은 매 2년마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귀중한 프로그램이었다. 두 형제는 당연히도 결선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해에 한 가족 구성원만 선택될 수 있다.

결론: 위원회는 두 훌륭한 후보자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고, 제임스는 이 규칙에 대해 알게 된 후 다니엘의 탁월한 재능을 위원회에 증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 제목

"Brothers' Selfless Support: A Tale of Exceptional Success"

"형제들의 사심없는 지원: 탁월한 성공의 이야기"

## ■ 주제

Can James and Daniel's selfless actions inspire you to support others in achieving success?

제임스와 다니엘의 사심없는 행동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지원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 ■ 요지

The power of selflessness and sibling support leading to a unique opportunity for two brothers.

사심없는 헌신과 형제자매의 지원의 힘으로 두 형제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 ■ 요약

James and Daniel each unknowingly advocated for the other to the selection committee, leading to both brothers being selected in a rare act of selflessness and mutual support.

제임스와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선정 위원회에서 서로를 옹호했고, 그 결과 두 형제 모두 이타적이고 상호 지원적인 드문 행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 구성

서론: James는 Daniel의 동의 없이 선발위원회를 방문하여 Daniel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했다.

본론: Daniel 또한 자신보다 더 적절하고 가치 있는 후보로 James를 검증하고 위원회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그들의 무차별성에 감동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두 형제를 같은 해에 선발했다.

결론: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며, 진정한 성공은 개인적 업적 뿐만 아니라 타인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